

〈電氣工事業篇〉

汎太平洋協力機構 創設基盤다져 業界, 韓電資材持入成就 등 活性化

任 仁 宰

韓國電氣工事協會 常任理事

1984年은 우리 電氣工事業界의 中興에 劃期的 轉機와 새地平을 여는 한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電氣工事業界는 올해 일부 市道의 제2종 業免許新規發給에 의한 業体過密現象의 深化와 建設景氣의 停滯등에서 비롯된 例年値에 못미치는 工事受給伸長勢等 否定的 側面이 없는 것은 아니나, 電氣工事人에 대한 産業勳章 褒賞으로 象徵되는 電氣工事業의 産業史的 地位 暢達을 爲始하여 宿願事業이던 韓國電力 發注工事 資材持入事業의 成就, 國際化時代에 對應한 友邦國 業界와의 國際協力事業 強化, 電氣設備技術力 진작을 目的으로 한 月刊「電氣設備」誌의 發行, 電氣工事共濟組舍에 의한 業界의 각종 保證 및 資金支援, 그리고 協會의 年例行事인 電氣工事技能競技大會의 規模擴大 및 競技力向上, 내년으로 예정된 第2回 서울國際電氣資材展 준비 작업의 成功的인 진척 등 業界發展에 巨步를 내딛은 것입니다.

우리 電氣工事業界는 지난 10月, 全國 2千餘數 會員業体 任職員들이 一堂에 모인가운데 電氣工事業振興促進大會를 開催하고 전기공사업의 先進化를 위해 經營의 合理化, 技術水準의 向上 및 新技術의 開發 健全한 企業風土의 造成 등 전기공사업의 제2의 跳躍을 위한 實踐課題들을 設定함과 동시에 우리 전기공사업인들의 새時代의 召命意識을 새로이 했습니다. 특히 이行事에서는 전기공사업인들에게 政府로부터 榮譽로운 産業勳章, 産業褒章, 大統領 表彰

등이 포상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 전기공사업 四半世紀 歷史上 初有의 일로서 우리 전기공사업계가 不毛한 여지에서 創業된 이래 産業發展의 原動力인 電力供給設備를 비롯하여 全國土 電化事業 遂行에 中樞的 役割을한 貢獻과 국가경제발전에의 寄與를 정부가 높이 評價한 結果임은 물론, 우리 社會가 우리 電氣工事業에 主要國家産業으로서의 地位를 부여한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전기공사업계는 「1879年 에디슨이 電燈을 發明, 1887年 우리나라가 전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수다한 逆境을 克服하고 오늘날 經濟發展의 主役으로서 자랑스러운 位置를 굳히게 된것=動力資源 部長官의 致辭에서」으로서 電氣工事業이 名實공히 국가산업의 一翼된 地位에 오른 「第2의 誕生」인 것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 전기공사업계가 成就한 일들은 다음과 같이 간추릴 수 있게 되거니와, 중요한 것은 이같은 모든 성취사업들이 協會組織을 求心點으로 하여 全體會員이 힘을 결집하고 슬기를 모은 結果라는 事實입니다. 우리 전기공사업계는 올해 그 어느때 보다는도 團合하고 相扶相助했으며 상호편달을 도모 했었음을 무엇보다도 보람있게 여깁니다.

우리 전기공사업계는 올해 懸案의 韓電工事資材持入 事業을 이룩하여 業界의 收益性을 높이는 터전을 마련했으며, 海外協力事業을 적극적으로 展開,

美·日等先進國과 아시안圈 여러나라 전기공사업계와 協力協議會를 構成하기에 이르고 우리업계가 主導한 汎太平洋 電氣工事協力機構 創設의 基盤을 다졌읍니다.

그리고 協會는 우리업계 技術力 增進事業의 일환으로 協會 技術研修院에 의한 電氣設備 技術誌發刊事業을 폈읍니다.

이 月刊「電氣設備」誌 발간사업은 協會가 우리전기공사업계에 몸담고 있는 技術者들에게「平生教育」次元에서 技術知識을 補完해주시기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協會는 이「電氣設備」誌에 대한 汎電氣界의 높은 聲價와 配布 希望者의 甚도현상에 크게 고무되고 있습니다.

協會의 年例行事로 3年次 大會를 가진 電氣工事 技能競技大會도 業界에 從事하는 技能人들의 競爭意識이 더욱 뜨거워짐에따라 全体 업계의 大會參與意識이 높아짐으로써 一場의 技能祝祭로 發展했을 뿐더러 技能人들의 기술研鑿에 促媒劑가 되었으며, 協會가 隔年으로 開催하는 서울國際電氣資材展覽會 準備作業, 또한 지난해 第1回에 人山人海의 壯觀을 이룬 國民의 높은 關心과 外國바이어들에 의해 波及된 國際의 聲價에 힘입어 積極的인 호응을 얻고 있어 來年 6月 開催豫定인 第2回 展覽會는 보다 큰 規模로 高級化되고 多樣化된 技術製品이 展示되는 행사가 될 것으로 期待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發足한 電氣工事共濟組合에 의해 이루어진 업계에 대한 經濟的支援事業에 있어서는 올해 各種保證단도 3萬餘件(約1,370億원)에 달하고 40億원 규모의 資金支援을 記錄했습니다. 이는 전기공사업계에 그만큼의 便宜와 企業負擔의 輕減을 기했으며 資金難의 緩化를 圖謀했음을 意味한 것입니다. 업계의 경제적 地位向上에 커다란 寄與를 한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전기공사업계는 올해 이같은 斐目한 成果를 거두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冒頭에서 말했듯

否定的 狀況의 發生으로 經營環境의 惡化에 直面하게 되고, 특히 工事受給實績 伸張勢의 鈍化를 가져온 대목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전기공사업계는 올해 일부 市道에서 第2種 電氣工事業 免許發給에 節制를 잃음에 따라 電氣工事物量과 業체數의 不均衡現象이 深化되었으며, 景氣不況局面 특히 建設景氣와 設備投資의 停滯로 電氣工事受給 伸張率이 例年の 水準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전기공사업 免許管理當局의 覺醒과 電氣工事受注領域의 擴大策을 提起하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84年の 우리 전기공사업계를 回顧컨데 우리 전기공사업계와 협회의 意思 및 期待에 相反하는 外的 與件에 의한 일부 부정적 結果를 例外로 하고는 올해 우리 전기공사업계와 協會事業은 至極히 發展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電氣工事業法施行令 改正에 의해 우리 전기공사업계와 協會運營의 自律性 伸張이 紀약되고 있는점도 올해의 수확이 아닌가 합니다. 이는 汎電氣界의 自律性 提高로 이어질 肯定的 要素라고도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세밀에 이르러 汗해의 日들을 回顧함은 該해에 成就한 日들에 充足感을 갖고 자해서 보다는 못다한 未完의 日과 未洽한 日, 또 소기한바의 目的에 미치지 못한 未及한 日들을 쟁겨 反省과 함께 補完的 努力을 기울이고자 하는 뜻이 더 많다고 할 것입니다.

本人의 回顧 또한 該리합니다. 따라서 電氣工事 業界와 協會는 該코 成就한 日들에 對해 自足함보다 未盡하고 否定的인 結果들을 洞察하고 더욱 분 발하고자 합니다.

전기공사업에 門外하고 또 業界에 未熟한 눈으로 84年の 전기공사업계를 돌아본 本人의 「客氣」에 삼가 江湖諸賢의 省察과 海諒있으시기를 巴달 뿐입니다.

*